

영광·곡성군수 민주 승리... 이번은 없었다



16일 재선거에서 영광군수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배우자와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당선자가 16일 재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배우자와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취업자 줄고 일자리 질도 악화됐다

2024년 9월 고용 동향 발표

전국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된 반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고용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 경기침체 악화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지역 관광, 자영업, 서비스업 등 다방면에서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명(1.0%) 감소했다.

광주시 고용지표가 하락한 것은 전반적인 지역 소비침체와 더불어 배달서비스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호남지방통계청은 설명했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9000명·-5.8%)가 가장 많이 줄었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5000명·-0.8%), 광공업(-2000명·-1.8%), 제조업(-2000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근로자는 1년 전보다 1000명(0.4%) 늘었지만, 상용근로자는 2000명(-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역시 고용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전남 고용률은 66.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떨어졌다. 15세이상 취업자 수 역시 1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1.0%)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4000명·-5.9%), 농림어업(-1만명·-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3000명·-3.5%) 등이 감소했다.

전남 역시 일자리 질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남 취업자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1만1000명(6.0%)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1만4000명(-3.4%)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노벨문학상 '소년이 온다' 창작 모티브 ▶2면

까만 나주배... 더 까만 농심 ▶6면

팔도 핫플레이스-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10·16 재·보궐선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이 사활을 걸며 '전국 선거'로 판을 키운 10·16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일방통행' 대신, 소통과 협치로 민생을 살릴 것을 요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달라는 민주당 호소에도, 여권의 텃밭 민심은 민주당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방선거(2018년)를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내어준 적 없었던 부산 금정에서 처음으로 야권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쳤지만 지역 민심을 얻지 못했다. 선거기간, 무인기와 북한의 경의·동해선 폭파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했던 경기 강화에서도 민심은 여권에 힘을 실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30분 기준 개표 결과, 민주당은 영광·곡성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각각 승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는 수성에 성공하며 체면치레를 했

영광군수 장세일·곡성군수 조상래 민주당 후보 당선

서울시교육감에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 승리

부산 금정구청장·강화군수에 국민의힘 윤일현·박용철

을 뿐 기존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금까지의 대치·갈등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김건희 리스크에 따른 공방과 남북 긴장 고조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부산과 인천 진출에 실패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향후 당 지지세와 확장성에 대한 과제를 따민게 봤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선거 초반 부산 금정 구청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각 당 지도부의 향후 진로 및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민심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음에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원 유세에 나서서 등 '단

일화 효과'를 기대한 야권의 총공세에도 부산 민심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텃밭인 영광·곡성에서 민심의 지지를 얻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견제를 따돌리고 승리하면서 호남의 집권 여당임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결국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가 내걸었던 교육정책의 전면 변화보다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지적된 취약점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방식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 후보자는 학력 저하를 보완하고자 기초학력 부진, 경제선 지능, 난독·난산 등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 격전지 영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

광군수 최종 투표율이 70.1%를 기록했다.

재선거임에도 지방선거와 비슷한 투표율을 보이면서 치열했던 영광군수 재선거 열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70.1%로, 전체 유권자(선거인) 4만5248명 중 3만1729명이 투표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70.2%)과 비교해도 0.1%p 차이에 불과하다. 이날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64.6%였다.

곡성군수 재선거는 전체 유권자 2만4640명 가운데 1만5908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제8회 지방선거(74.0%)때와 비교하면 10%p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격전지 영광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23.5%,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47.2%,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58.3%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 ✔ 전남 대도약의 시작, 2025년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 ✔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8년 연속 1조 원 이상 국비 확보!
- ✔ 한국형 아우토반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검토 착수!

